학교 가는 길 "너무 힘들어요"

기획취재 수원캠퍼스 교통현황과 통학버스의 개선점

현재 수원캠퍼스의 교통문제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이전에 비해 많이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스쿨버스 운행을 중심으로 현재 수원캠퍼스의 교통상황 및 학교 버스운행에 있어서의 개선점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최양은 지난해 가을 자가용을 구입했다. 자가용을 구입하기 전 장실이 집인 최양이 등교에만 투자했던 시간은 2시간 30분. 이중에서 순수하게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보냈던 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이었다.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그중 강남역까지 전철을 이용한 후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데만 허비하는 시간은 30분 가량이었다. 현재 최양이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데에 보내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종전보다 단축된 2시간 정도의 등교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거나 첫시간 강의를 준비하는 데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교 시간의 짜증스러움과 피곤함을 덜 수 있어 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무리가 그리 아깝게만은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양의 말이다.

현재 수원캠퍼스에는 학생의 자가용 등교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생신문에는 지나친 사치라는 사회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원캠퍼스에서 학생 자가용이 눈에 띄게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원캠퍼스에 통학하면서 느끼는 학생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또 교통사정상 자가용 등교라는 사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데서 기인한다. 수원캠퍼스 초창기에 비해서는 주변의 교통사정이 상당 부분 보강되고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수원캠퍼스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남부터미널에서 양재를 거쳐 학교까지 들어오는 직행버스(경일·경남여객)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잠실에서 판교를 거쳐오는 100-2번 좌석 버스가 10~11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수원에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노선의 경우를 보면 62번은 1일 16회 운행(40~45분 간격), 61번 1일 8회 운행(1시간~1시간 30분 간격), 92-1번은 1일 20회(20분 간격) 운행되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도 적지 않게 유치되었다. 또한 수원캠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스쿨버스 수도 결코 인근 다른 학교에 비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캠퍼스의 산적한 문제가운데 해마다 지적되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괴로운 질실히 느끼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등하교 길에 부딪치는 교통문제이다. 매일 매일의 등교길에서 느끼는 짜증스러움과 피곤함은 현재 강남, 수원, 신갈에서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에 대한 것들이다.

현재 수원 캠퍼스는 모두 26대의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5대가 수원행에 투입되고 있고 2대가 신갈행에, 나머지 19대가 강남행에 배치되어 있다. 노선별로 학교에서 정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교 차량이 5~8분 간격으로 집중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노선의 경우 하교 시간 중 가장 한적한 12시부터 2시

정해진 시간표 없어 이용자 혼란 가중

교통상황 홍보와 학생위한 배려 아쉬워

하고 있는 운행시간을 살펴보면 우선 강남역에서 학교까지 노선의 경우 등교시간에 7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는 2~5분 간격,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5~10분 간격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수원노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는 5~8분 간격으로 집중배치되어 있고 9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8~10분 간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교시간에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10~15분 간격으로 짜여 있는 등 30분 이상으로 짜여진 배차간격은 없다.

그러나 승차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황은 이와는 명확히 다르다. 강남노선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붐비는 오전 8시에서 8시 40분까지는 상당 부분 보강되고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수원캠퍼스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남부터미널에서 양재를 거쳐 학교까지 들어오는 직행버스(경일·경남여객)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잠실에서 판교를 거쳐오는 100-2번 좌석 버스가 10~11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수원에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노선의 경우를 보면 62번은 1일 16회 운행(40~45분 간격), 61번 1일 8회 운행(1시간~1시간 30분 간격), 92-1번은 1일 20회(20분 간격) 운행되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도 적지 않게 유치되었다. 또한 수원캠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스쿨버스 수도 결코 인근 다른 학교에 비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캠퍼스의 산적한 문제가운데 해마다 지적되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괴로운 질실히 느끼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등하교 길에 부딪치는 교통문제이다. 매일 매일의 등교길에서 느끼는 짜증스러움과 피곤함은 현재 강남, 수원, 신갈에서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에 대한 것들이다.

현재 수원 캠퍼스는 모두 26대의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5대가 수원행에 투입되고 있고 2대가 신갈행에, 나머지 19대가 강남행에 배치되어 있다. 노선별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 없이 이용자 혼란 가중

교통상황 홍보와 학생위한 배려 아쉬워

어길 경우 기다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짜증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을 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교시간에도 5~10분씩 출발시간이 번동되는 것은 다반사여서 심지어 버스시간이 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학생도 있었다. 수원행을 이용하는 한 학생의 경우 "요금을 적정선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불편사항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두번째는 교통상황의 변동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스 출발시간의 정확한 시간간격과 배차시간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이용학생을 분산시키고 통학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로 지난 3월 2일 개강후 일주일 가량 강남행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아(학교의 이유설명) 마지막 버스가 임의로 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업자나 관련부서에서는 이렇다할 공고나 안내문의 게시가 없었고 이로 인해 혼선을 빚은 학생도 적지 않았다.

세번째로 이용학생에 대한 작은 편의 배려가 아쉽다는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곳은 야외이므로 날씨가 고르지 못할 경우 미리 학생들을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강남 승차장의 경우 서초구청의 배표소 가건물 철거이후 별다른 배표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표를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부터미널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교내 각 매점 등 여러곳에서 승차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넷째, 노선별 막차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점이다. 도서관 등 학교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도 막차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용자수가 많아 늦게까지 남아 있기가 불편하고, 방학에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 힘들어 야간이나 방학중에는 캠퍼스의 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 학생들의 경우도 등하교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하는 등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침 강남승차장에서 더욱 심하며 이들 단속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점차로 학교 통학 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오는 6월 지하철 분당선이 개통되면 통학버스의 상당수를 분당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순환전철'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선에 이어 신갈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노선을 신설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원캠퍼스 교통문제의 해결은 전철유치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주지의 사실로 볼 때 이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영통지구 개발이 완공되고 순환전철사업이 마무리 되기까지 기간 동안 이용될 기존의 스쿨버스 운행에 있어 많은 개선의 필요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통학버스의 배차시간을 엄시하고 준수하는 등 기존의 운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더불어 학생들도 승차 질서를 준수하는 등의 사용자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박경화 記者)

◇평일 통학버스 운행 시간표

	등 교	하 교
강남역 -학교	07 : 40-08 : 10(5-10분 간격) 08 : 10-09 : 10(2-5분 간격) 09 : 10-10 : 30(5-10분 간격) 10 : 30-12 : 00(10-20분 간격) 12 : 00-16 : 00(이후 회차이용) 야간학생을 위한 특별배차 16 : 30, 17 : 00, 17 : 30, 18 : 00 (1일4회)	11 : 30-14 : 00(20-30분 간격) 14 : 00-16 : 00(10-20분 간격) 16 : 00-18 : 00(5-8분 간격) 18 : 00-21 : 00(10-20분 간격) 21 : 00-22 : 00(20분 간격) 22 : 00-(야간학부생 수송)1-2대
수원역 -학교 (시내버스 포함)	08 : 00-08 : 30(10분 간격) 08 : 30-09 : 00(5-8분 간격) 09 : 00-10 : 30(8-10분 간격) 10 : 30-12 : 00(15-20분 간격) 12 : 00-16 : 00(이후 회차이용)	12 : 00-14 : 00(20-30분 간격) 14 : 00-16 : 00(15-20분 간격) 16 : 00-18 : 00(10-15분 간격) 18 : 00-19 : 00(15-20분 간격) 19 : 00-21 : 00(30분 간격) 22 : 00-(야간학부생 수송)1대
토, 일 요일및 공휴일	가. 강남역, 수원역-운행없음 나. 신갈 : 09 : 00-17 : 00까지 1시간 간격운행	

편하고 경제적인 '카풀' 등교

-새롭게 자리잡은 교통문화

학교로올 수 있는교통편의 이용이 불편해지자 수원캠퍼스에는 몇가지 새로운 등교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 한가지는 학생의 자가용 등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학내의 출입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발부하기 시작한 자가용의 학교 출입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7일 현재 학내 교수및 강사, 조교, 직원들에게 발부된 출입증은 모두 2백67건인데 반해 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학생 자가용 출입증 발급건수는 9백37건으로 학생의 자가용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가용 통학 학생은 "학기가 바뀔 때마다 눈에 띄게 자가용이 증가해 주차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해 학생의 자가용 등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 경향은 3·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카풀'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경영학과 4학년의 경우 총 61명중 자가용 등교생은 10명이고 이가운데 카풀형식이용 차량이 5~6대가 된다. 역시 카풀형태의 등교를 하고 있는 무역학과 한 여학생의 경우 "시간은 중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우선 힘들던 등교길이 편해졌고 같이 타는 친구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같이 타는 친구와 돌게이트 비용을 번갈아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라고 말해 어려운 등 하교 승차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구적 노력이 장구보가도 한몫 나타냈다. 학생 신문에 자칫 사치스러운 등교 방식일 수 있으나 학생신분에 과분한 중·대형차를 소유하거나 그야말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가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카풀제 등교법과 같이 인근

힘든 등교길에 학생의 자구책

정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체이스컬트 콘서트

금난새가 지휘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오케스트라!
국내최초 전국 15개 대학
음악동아리 200명 참가!
수원시향과 성악가 최현수
그리고 노영심, 이승환, 강산에,
일기예보, 신효범 출연!

체이스컬트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26일 그 날의 무대를 위해 대학생 동아리들이 땀흘려 준비했으며 음악회 사상 유례가 없는 200명의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씨가 지휘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일곱 노영심의 사회로 펼쳐질 체이스컬트 콘서트는 수원시향이 함께하여 한층 수준높은 음악을 선사합니다.
바리톤 최현수와 이승환, 신효범, 강산에, 일기예보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함께 출연, 폭넓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온 가족이 넉넉한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께 체이스컬트 콘서트 레퍼토리가 담긴 CD를 증정합니다.
공연 초대권은 체이스컬트 매장에서 무료 배부합니다.

●일시 : 1994. 3. 26 (토) 오후 5시
●장소 : 잠실 실내체육관
●지휘 : 금난새
●출연 : 전국 15개 대학 음악동아리 오케스트라 200명, 최현수, 수원시향, 노영심, 이승환, 신효범, 강산에, 일기예보
●주최 : SS 에스에스패션
●후원 : KBS 한국방송공사

●문의처 : 에스에스패션 체이스컬트팀 02) 580-0361 ~ 5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